

## 양혜규, <솔 르윗 뒤집기> 연작으로 세계 미술계에 선전

July, 2016

### 양혜규, <솔 르윗 뒤집기> 연작으로 세계 미술계에 선전

양혜규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아트바젤 언리미티드 섹션에 국제갤러리 작가로 참가한다. 양혜규 작가의 언리미티드 섹션 참가는 세 번째로, 올해 주요 출품작은 2015년에 제작된 <솔 르윗 뒤집기> 연작 중 첫 작업이다.

<솔 르윗 뒤집기-23 배로 확장 후 셋으로 나뉜, 세 개의 탑이 있는 구조물> (2015)은 500개 이상의 독립된 부품들로 이루어진 대형 블라인드 설치작이다. 솔 르윗의 1986년도 작품 <세 개의 탑이 있는 구조물>의 입방체 형태와 구성을 차용 하되, 23배 확장하고 거꾸로 걸면서 역사적인 단일 모듈형태에 관한 사고를 자신이 오랜 기간 실험해온 재료와 결합시킨다. <솔 르윗 뒤집기> 연작은 지난 2015년 3월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열린 개인전 <코끼리를 쓰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에서 세 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 정육면체를 전시하면서 최초로 실험하고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아트바젤에서는 이 분리된 형태의 탑 3개가 마치 땅 위에 접지해 서 있는 형태로 관람객들의 눈높이로 내려오는데, 형광등 그리드가 자체적인 광원을 수반함으로써 다층적인 레이어의 백색을 고찰하게 한다. 아트바젤 언리미티드 섹션은 기존의 고전적인 미술전시 개념에서 벗어나 대형 조각작품과 회화작품, 영상작품, 대규모 설치작품을 비롯하여 퍼포먼스까지 포함하는 실험적인 플랫폼이다. 올해도 스위스 출신 큐레이터 지아니 젯처(Gianni Jetzer)가 기획했으며, 양혜규를 비롯하여 제임스 로젠키스트, 아이 웨이웨이, 폴 매카시 등의 작품이 출품된다.

한편 양혜규는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오는 7월 5일에서 9월 5일까지 열리는 개인전 <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Lingering Nous)>를 통해 블라인드 설치 신작 및 구작 영상 에세이 4편을 전시한다. 발광 다이오드를 포함한 색색의 블라인드 구조 작품이 퐁피두센터 내 강당에 설치 될 예정이다.



위부터

양혜규, <솔 르윗 뒤집기-23 배로 확장 후 셋으로 나뉜, 세 개의 탑이 있는 구조물> (모던 라이프) 전시 전경, 리움 비엔날레, 라 쉬크리에, 리움, 프랑스, 2015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Blaise ADILON

양혜규 개인전 <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Lingering Nous)> 웹 포스터,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